

웹툰에서 1화 마지막 칸과 2화 첫 칸의 연결 관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본론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원석1)*

초 록

만화는 '연속된 칸의 배열'이라는 명제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연속된 두 칸 이상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 앞 칸과 뒤 칸의 연결 관계는 어떠한 지 등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만화는 웹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과거 출판만화 시대의 단행본이나 잡지를 거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게재되는 만화를 즐기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웹툰 또한 연속된 칸의 배열로 구성된다. 단지 그 방향과 모양, 길이 등이 출판만화와 다른 점을 보인다. 이에 연구자는 연속된 두 칸의 연결관계를 다시 한 번 규명하려 한다. 특히 한 화 혹은 한 에피소드에서 칸의 연결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연재되는 두 화로 확장시켜 앞 화의 마지막 칸과 다음 화의 첫 칸의 연결 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하는 웹툰 100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특히 작품의 1화 마지막 칸과 2화 첫 칸을 분석하였다. 첫 화를 분석한 이유는 독자를 사로잡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재 첫 화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분석의 최대 관심은 두 칸이 연결성 측면에서 '연결'인가 또는 '단절'인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6년 현재 대표적인 모바일만화 플랫폼 레진코믹스와 탐툰의 작품을 20여 편 분석하여 웹툰과 모바일만화에서 칸 연결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연재만화의 한 화의 마지막 칸은 그 화를 정리하는 기능과 동시에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갖는다. 또한 다음 화의 첫 칸은 전 화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칸은 적어도 대개 일주일이라는 시공간적 간극을 연결시켜야 한다. 첫 칸이 전 화의 이야기를 떠 올리게 하는 것이 쉬운 연결 기술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은 온전한 작가의 몫으로, 작가는 어느 지점에서 한 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화로 넘어갈지 고민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재되는 만화의 시공간적인 간극을 칸이 어떻게 연결하는 지에 관한 유형을 통계로 제시함으로써 칸 연출의 연구 범위를 칸과 칸의 연결에서 에피소드와 에피소드의 연결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적으로나 만화 연출 상으로 두 화를 어떻게 연결하는 지에 관한 고민을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웹툰, 연재만화, 칸새, 칸연출

1) 이 논문은 2014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 웹툰 작품은 매주 연재하는 스토리만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살펴보면, 요일마다 여러 작품이 일정 기간을 두고 연재되는데-주로 매주- 이야기가 연결되는 만화가 있고 매 회 에피소드가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도 있다. 서사만화²⁾ 형태의 웹툰은 이야기가 시작되어 다음 화로 이어지고 한 화의 후반부나 마지막 장면은 다음 화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 될지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앞 화의 마지막 칸이 바로 다음 화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연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에서 바라보면 연출상의 삽입이나 액자 구조를 갖는 것이지 큰 이야기의 흐름은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서사 웹툰에서 앞 화의 마지막 칸과 다음 화의 첫 칸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지 혹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지 살펴보고 어떤 연결 유형이 많은지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연재를 시작하는 1화와 2화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기계적인 분석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경우, 마지막 2칸이나 첫 2칸 안팎을 분석 할 수도 있다.

분석의 대상은 2016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조회수 상위 50여 작품 안팎을 추출하여 총 100여 작품을 분석한다. 2016년 이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 또한 분석이 대상이다. 다음의 경우 조회수를 랭킹(평점)으로 대신하고 네이버와 작품의 양을 비교하여서, 연재 중인 작품과 완결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러나 서사만화의 양상을 띠지 않는 작품과 단편만화, 4칸만화 등은 제외할 수 있다. 또 예고편이나 프롤로그는 특별한 내용을 담는 경우 1화와 묶어서 분석에 포함한다. 모바일 만화의 경우, 포털사이트 웹툰

2) 스토리만화를 칭하며 이 연구에서는 사건의 서술과 연속을 감안하여 ‘서사만화’로 표기함. 용어는 김미림, 『서사만화개론』, 범우사, 1999 재인용. -연구자 주

과 비교을 위해 대표적인 모바일만화 플랫폼인 ‘레진’ 과 ‘툽툽’ 의 10여 작품을 각각 분석한다. 요약하면 총 120여 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1화의 마지막 칸과 2화 첫 칸을 ‘연결’ 또는 ‘단절’ 유형으로 분석, 어떠한 유형의 연결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만화를 ‘일련의 이미지의 연결’ 로 정의하려는 시도와 연구는 ‘그래픽 노블’ 의 창시자인 윌 아이스너(Will Eisner)와 『만화의 이해/미래/창작』 시리즈의 저자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의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윌 아이스너는 “이미지로 스토리를 전달하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략- 본래 만화는 그림으로 구성된 시각매체다. 글이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하나 묘사와 서사는 대중적으로 이해된 이미지들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고 주장했다.³⁾ 여기에서 만화는 연속된 이미지 즉 연속된 칸의 배열로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점에 동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재만화는 매 화 마지막 칸을 갖고 그 다음 화에서 첫 칸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윌 아이스너는 또한 ‘만화란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예술이다’ ⁴⁾고 강조했다. 연구자는 시공간적으로 일정정도 단절된 두 화를 연결하는 지점인 칸 연결의 유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아이스너는 또 ‘만화가의 임무는 어떤 줄거리를 구성하는 여러 사건들을 서사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사건 혹은 그림들을 엮어 배열하는 데 있다’ 고 주장했다.⁵⁾ 웹툰의 경우, 한 화에서 바로 바로 이어지는 그림 즉 칸은 인지 가능하다. 하지만 매주

3) David Beron, Bookman' s Weekly, 1995년 7월호 칼럼 중에서 -윌 아이스너, 그래픽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내러티브, p.4th ‘들어가며’, 비즈앤비즈, 2009 재인용

4) 윌 아이스너, 『그림을 잘 엮으면 만화가 된다(Comics & Sequential Art)』, p.19, 현실문화연구, 2000

5) 윌 아이스너, 『만화와 연속예술』, p.40, 비즈앤비즈, 2009

연재되는 웹툰에서 앞 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연결 형태의 칸의 배열은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는 경우 좀 더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맥클라우드의 이론에 대입하면, 순간/동작/소재 이동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쉬운 형태의 인지능력을, 장면/양상 이동은 좀 더 높은 인지능력인 ‘완결성 연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서로 다른 그림의 연속된 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결성 연상(closure)’라고 설명했다.⁶⁾ 만화는 그 자체가 이러한 완결성 연상을 요구하는 칸의 연속된 배열로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칸의 연결 방식이 순간/동작/소재/장면/양상/무관계 등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 연구에서 장소의 변화가 없는 순간/동작/소재 이동이 연결 유형에 속하고 나머지가 단절 유형에 속한다.

국내 스토리만화의 이론가이자 만화가인 박기준은 ‘만화가 시작되면 첫 장면부터 그 만화를 판단하고 그 기분으로 만화를 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처음이 재미없으면 독자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보는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작품을 외면해 버릴 것’이라고 첫 장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⁷⁾ 연재 웹툰에서도 마찬가지로 1화 첫 장면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 보면 첫 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1화가 중요한 만큼 다음 화의 첫 장면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 화의 마지막 장면이나 칸이 다음 화의 첫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화에서 칸과 칸을 연결하는 여러 유형에 좀 더 관심을 둔 이론을 살펴보면, 안수철이 지은 『만화연출』 ‘장면 수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 연결을 점층/반복/분할/이중/동시진행/생략/비유 등 여러 수사법을 동원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잇기법’을 인용하면, 그의 이론에서 잇기법이란 ‘앞 장

6) 원래 지각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완결성’으로 부른다. 정신의 연상 작용의 완결을 강조하기 위해 ‘완결성 연상’으로 번역했음.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p.70, 2012

7) 박기준, 『만화 스토리작법』, p.115, 우람, 2000

면의 마지막 화면에 있는 말, 효과음, 대상물, 연상 등의 매개물을 다음 장면의 첫 화면으로 이어 받아 전개해 나가는 수법'을 말한다.⁸⁾ 이렇게 이어 받아 전개하는 것은 맥클라우드의 칸새 이론에서 '순간/동작/소재 이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야기 즉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에는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지점을 언어학에서는 소통기술(communicative competence) 중 한 가지인 구성기술(organizational competence)로 설명한다.⁹⁾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술이 언어습득과 이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두 주제는 적절한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주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기술이 바로 '언어 습득 및 유창함'에 해당한다.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기술이 언어구사에서 중요한 것처럼 만화에서도 이야기를 전환하는 칸의 연결이 요구된다.

일정 기간을 두고 연재되는 창작물은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의 사건을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TV 드라마로, 주간 단위로 방송되는 드라마는 전회(前回)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보여 주거나, 전회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여주기도 한다. 잡지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만화도 각 권의 권두에 전 권의 스토리를 요약하는 편집을 볼 수 있다.

한 칸으로 구성된 카툰에서도 서사를 읽을 수 있다.¹⁰⁾ 하지만 연재의 형식을 갖지 않는 이유로 서사만화와는 다르고, 일본 작가 아주마 키요히코(東清彦)의 <아즈망가 대왕>의 경우 네칸만화 형식이지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 그러나 4칸만화의 경우 주로 기승전결 전개의 양상이 가장 흔하고 여러 수사법이 더 돋보이는 이유로 칸의 연결이 서사만화와 다르다.¹¹⁾ 따라서 이 연구

8) 안수철, 『만화연출』, p.237, 글논그림밭, 1996

9) Stephen Krashen, 「The Monitor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70

10) 안소라, 이원석, 「카툰의 서사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3, pp.223-246

에서는 4칸만화를 특별한 경우를 빼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만화에서 사건을 전환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스크 맥클라우드나 안수철, 정규하, 한상정과 고동균도 칸새를 연구했으나, 분석/분류한 칸의 연결 혹은 이동 이론은 주로 한 에피소드 안에서 칸 연결에 주목하였다.¹²⁾ 그러나 이 연구는 시공간의 단절을 이어주는 연재만화에서 두 화를 이어주는 칸의 연결을 분석했다.

Ⅲ. 본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으로 웹툰에서 서사만화의 등장을 약술하면, 2000년대 이전에 다양한 디지털만화가 인터넷에 선보였다.¹³⁾ 그러나 원작인 출판만화를 스캔한 경우나¹⁴⁾, 연재 매체인 신문사나 잡지의 옴니버스 식 작품의 재생산¹⁵⁾ 또는 서사 성격이 약한 일상툰이 지배적이었다. 최초의 서사만화는 2003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디어 다음/만화 속 세상’ 코너에서 그해 10월 24일 선보인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로 볼 수 있다. 매 화 서사가 이어지는 진정한 서사 웹툰이다. 이후 파란닷컴에서 양영순 <1001>, 그리고 엠파스에서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 같은 서사 웹툰이 인기를 끌었다.

1. 네이버 웹툰

네이버는 ‘만화/웹툰’ 코너를 장르별로 구분했다. 먼저 크게 세 부분인 에피소드, 옴니버스, 스토리(서사물)로 나누고, 스토

11) 이원석, 「국내의 네칸만화 수사적 표현 연구」, 앞 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05.10, pp.18-32

12) 단일 작품에서 칸새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규하, “출판 만화와 웹툰의 형식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윤태호의 <야후>와 <이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8.

13) 조선일보에서 박광수 <광수생각> 1997년 연재 이후 인터넷 서비스.

14) 예를 들면, 천리안 웹툰 서비스에서 홍윤표 <천하무적 홍대리>를 2000년 8월 8일 발표.

-박인하 「한국웹툰의 역사」 청강문화산업대학, 2014 재인용.

15) 일간스포츠 양영순 <아색기가> 경우 웹 서비스를 하지만, 매 에피소드가 달라서 서사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연구자 주.

리 하위 디렉토리에 일상, 개그, 판타지, 액션, 드라마, 순정, 감성, 스틸러, 시대극, 스포츠 등으로 구분했다. 2016년 1월 현재 총 421편의 작품이 조회순으로 랭킹되어 있고 업데이트순이나 별점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에피소드 장르에서는 단연 조석 <마음의 소리>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옴니버스 장르에서는 오성대 <기기괴괴> 작품이 있으나 두 작품 모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결되는 이야기를 다룬 서사만화가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시된 도판은 모두 다음 정렬순서를 따른다. 그림 왼쪽이 1화 마지막 칸, 오른쪽이 2화 첫 칸. 캡션은 작가, 작품, 장르, 연재 시작, 연재주기, 연결유형, 장면설명이다.



처음보는 엄마의 화난 모습이었다.



그림 1. 박태준, 외모지상주의, 학원물, 2014.11.20., 주간, 연결, 위기의 순간 학교를 찾아 온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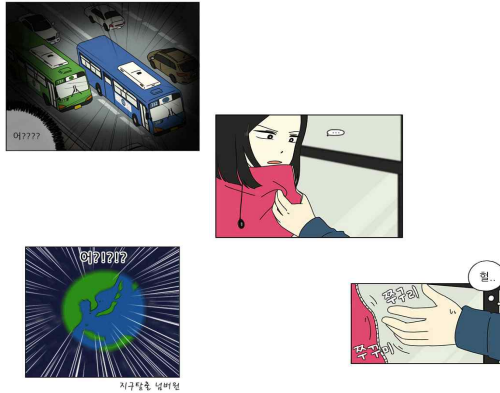


그림 2. 232, 연애혁명, 학원물, 2013.09.04.,
주간, 연결, 우연한 만남

네이버에 연재되는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 1화 마지막 장면은 다음 2화 첫 장면으로 이어진다. 물론 다른 대상을 그린 칸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스콧 맥클라우드 이론에 의하면 ‘소재 이동’에 해당한다.(<그림 1>) 작가 232의 <연애혁명>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버스 안에서 장면이 2화로 진행되는 연결 양상을 보인다.(<그림 2>) 반면 SUI 작가의 <신의 탑>은 1화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2화를 시작하지만 곧 전 화의 이야기로 돌아오지만 연결 유형은 단절이다.(<그림 3>)



그림3 SIU, 신의 탑, 판타지, 2010, 주간,
단절, 새로운 인물의 등장.

네이버에 연재되는 작품 1화 마지막 칸과 2화 첫 칸을 분석한 결과, 총 50여 작품 중 37작품(74%)이 ‘연결’ 유형을 보였고, 13작품이 ‘단절’ 유형을 보였다. 1화 마지막 칸이 2화 첫 칸과 그대로 이어지는 연결 유형의 경우, 기계적으로 같은 장면이나 장소의 연결이 흔히 보였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연결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장면이나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도 ‘연결’에 포함했다. 단절 유형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이다.

연번	작가	작품	유형	비고
1	박태준	외모지상주의	연결	
2	232	연애혁명	연결	
3	기안84	복학왕	연결	
4	전선욱	프리드로우	연결	
5	상하	연놈	연결	
6	김칸비, 황영찬	후레자식	단절	
7	김규삼	하이브	연결	휴재
8	박용재	갓 오브 하이스쿨	단절	
9	순끼	치즈인더트랩 4부	연결	휴재
10	HUN, 제나	소녀더와일즈	연결	
11	SIU	신의 탑	단절	
12	손제호, 이광수	노블레스	연결	
13	설이, 윤성원	뷰티풀 군바리	연결	
14	조용석	윈드 브레이커	단절	
15	영과카	평범한 8반	연결	
16	모랑지	소녀의 세계	연결	
17	허니비	이상하고 아름다운	단절	
18	윤준식, 송지형	블레이드 노트	단절	
18	샤니	203호 저승사자	연결	
20	배철 완	썸남	단절	
21	아현	오! 주 예수여	연결	
22	5iAm	모태솔로수용소 시즌2	연결	
23	이온	슈퍼 시크릿	연결	
24	월유메리미	마인드C	연결	
25	쿠베라	카레곰	연결	
26	류기우, 문정후	고수	단절	

27	현용민	웃지 않는 개그반 3부	연결	
28	신의철	사이드킥2	연결	
29	후렛사, 김홍태	마야고	연결	
30	삭	헬퍼2	단절	
31	오성대	기기괴괴	연결	
32	최병열	최강전성 강해효	연결	
33	한	상중하	연결	프롤로그
34	최윤열	레드돌	연결	
35	양세준	서복의 저승사자	연결	
36	하람, 김영지	소울카르텔	연결	
37	환쟁이	악의는 없다	단절	
38	결계녀	김태경	연결	
39	성상영, 상아	더 게이머	단절	
40	이해	레코닝	연결	
41	김계란	공복의 저녁식사	단절	
42	이상규	호랑이형님	연결	
43	강냉이	전설의 레전드	연결	
44	맛스타	언터처블	연결	휴재
45	미티	컨트롤제트	단절	
46	윤혁석	다이스	연결	
47	한경철	스피릿 핑거스	연결	
48	산삼	달수 이야기	연결	
49	김호드	연애의 정령	단절	
50	이수민	귀도호가록	연결	

표 1. 네이버 웹툰 연결 유형

50여 작품 중 37작품이 1화 마지막 칸과 2화 첫 번째 칸으로
이행하면서 사건이 연결되고 13작품이 단절.

연재 웹툰 중 손제호, 이광수의 <노블레스>가 2007.12.30.에 연재를 시작하여 최장수 작품으로, 연결 유형을 보였다. 총 50여 작품이 주간 연재 형태를 갖고 있고, 휴재 중인 작품이 3편 포함되었다. 작품 <드라마>를 연재중인 한 작가의 경우 1화와 프롤로그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 있어서 포함했다.

네이버에 연재되는 작품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지만 74%의 작품이 동일한 장면이나 유사한 칸의 연결을 통해 두 화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은 독립된 각 에피소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스코트 맥클라우드의 통계에 의하면 만화 작품 전체 칸의 연결 유형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동작 이동’이 65%, ‘소재

이동' 이 20%이다.¹⁶⁾ 비록 서양 작품 위주이지만 부드러운 연결인 동작/소재 이동이 85%를 차지하는 것은 네이버 웹툰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웹툰이 좀 더 단절의 유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테즈카 오사무(手塚 治虫)를 비롯한 일본 작품과 비교하면 70%대로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2. 다음 웹툰

포털사이트 중 가장 먼저 만화 서비스를 선보인 다음은 ‘웹툰’ 코너를 2016년 1월 기준으로 랭킹, 웹툰리그로 단순하게 구분했다. 요일별로 웹툰을 볼 수 있고 신작 코너가 눈에 띈다. 랭킹 코너는 다시 연재와 완결로 나뉘는데, 각각 기간과 평점 순으로 재정렬해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림 4. 센개, 못 잡아먹어 안달, 학원/코믹, 2014.09.12., 주2회, 단절

다음 웹툰은 연재랭킹에서 20여 작품을 주간 순위(일간이나 평점이 아니라) 기준으로, 완결랭킹에서 20여 작품을 평점 순(일간아님)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회수를 대신하여 랭킹 순으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다.¹⁷⁾ 한편 서사물이 아닌 에피소드나 옴니버스 작품이 혼재되어 있어서 일부 작품은 랭킹에 있어도 분석에서 제외함을 밝힌다.

16)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p.83, 비즈앤비즈, 2012

17) 다음카카오 경우, 2016년 1월 현재 연재 및 완결 웹툰을 각각 20위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최근 ‘다음카카오’로 지칭해야 하나 널리 알려진 이름인 ‘다음’으로 명명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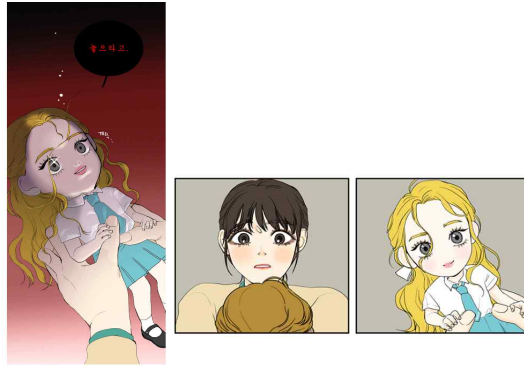


그림 5. 여은,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
순정/지식, 2015.07.05.. 주간. 연결

다음 연재 웹툰 중, 센개 작가의 <못 잡아먹어 안달>은 1화와 2화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는 4칸만화로 형식을 전개하는 관계로 단절의 양상을 보이는 특성을 그대로 보인다. 인기 순위를 감안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그림4> 반면 여은 작가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는 1화 마지막 칸의 이야기가 2화 첫 칸에 그대로 이어진다.<그림5>

다음 연재 웹툰 총 25작품을 분석한 결과, 연결 유형의 작품이 17작품으로 68%. 단절의 양상을 보인 작품이 8작품이다. 참고로 총 3작품이 주간 연재를 넘어서 주2회 연재하고 있고 2007년부터 연재한 네스티켓 작가의 <트레이스>가 최장수 작품이다.<표2>

네이버가 74%의 연결 유형을 갖는 것에 반하여 다음은 68%로 다소 떨어진다. 4칸만화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영향도 있고, 네이버 연재작품들과 다음 연재작품의 성격이 다소 어른스러운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¹⁸⁾

18) 네이버 웹툰 소비층은 주로 10대~20대이나 다음 웹툰 네티즌의 연령이 더 넓은 가정을 할 수 있다. 다음 경우, 중년층도 독자로 끌어들이는 천계영, 강도하, 이충호, 강풀, 윤태호 등 중견작가의 작품이 있다는 점에서 추측 가능하다. -연구자 주.

연번	작가	작품	유형	비고
1	센개	못 잡아먹어 안달	단절	4칸
2	여은	대새녀의 메이크업 이야기	연결	
3	이노안	축복받은 종양	연결	
4	슬희	오빠의 향기	연결	
5	김철현	무장	단절	
6	엄세운. 정이품	국민사형투표	연결	
7	노경환, 압현	레드스톱	단절	
8	만물상	양말도깨비	연결	
9	곽인근	첫사랑은 죽었다	연결	
10	디디	생존인간	연결	
11	골드키위새	죽어도 좋아	연결	
12	보리	실	연결	
13	천계영	좋아하면 울리는	단절	
14	유비	페이머스 맨	연결	
15	ALIC	천연	단절	
16	고은	살아말아	연결	
17	네스티켓	트레이스	연결	
18	이원진	아스팔트 정원	단절	
19	박시인	주간소년열애사	단절	
20	이무기	곱게 자란 자식	연결	
21	사자토끼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	연결	
22	류성곤	별신마을 각시	단절	
23	민홍	소년 가라사대	단절	
24	정은숙	신시	연결	
25	케이지콘	블랙 베히모스	연결	

표 2. 다음 연재 웹툰 연결 유형

다음에 연재 중인 작품 25개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연출이 17작품이고 단절 8작품.

다음 완결 웹툰은 일간 순위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평점 순으로 분석한다. 김종훈 작가의 <살생부>는 1화와 2화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다. 단절의 양상을 보인다. 젤리빈 작가의 <묘진전> 경우 1화 마지막 칸과 2화 첫 칸이 다르다. 하지만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지만 다른 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림 6>)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결로 분석했다. 완결 웹툰은 총 24편을 분석했다.



그림 6. 젤리빈, 묘진전, 판타지/신화,
2013.11.21., 주간, 연결,

다음 웹툰 중 완결 작품에서 약 40%가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연재 웹툰이 70% 안팎의 연결 유형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하면 그 수치가 상당하다. 완결 작 중에서 4칸 만화가 두 작품 포함된 것을 감안해도 다소 높은 단절의 양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 화와 뒤 화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은 만화에서 일종의 ‘점프 컷’ 효과를 가져 온다.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에게는 전혀 다른 사건을 마주하면서 전 이야기를 회상해야 하는 인지적 연상을 발휘하게 만든다.(<표 3>)

연번	작가	작품	유형	비고
1	김중훈	살생부	단절	
2	젤리빈	묘진전	연결	19)
3	무류	십이야	단절	
4	오곡	그녀와 32분의 1	연결	
5	s_owl	홍도	연결	
6	박시인	저녁 같이 드실래요?	단절	
7	마루	나의 빛나는 세계	연결	
8	지늑	멀리서 보면 푸른 꿈	단절	
9	김은경, 변기현	연무	연결	
10	이종규	신사의 집	단절	

19) 다음 화 첫 칸의 공간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연결성이 보인다.

11	조금산	시동	연결	
12	김민재	동재네 식구들	연결	4칸
13	김종진	순간	단절	
14	손장원	달이 내린 기슭	연결	
15	고아라	청소년 영화	연결	
16	디디	관찰인간	단절	
17	한지혜,안정은	아메리칸 유명작	단절	
18	맥퀸 스튜디오	타고난 사람들	연결	4칸
19	우다	그래도 되는가	연결	
20	참치캔	연애가 제일 쉬웠어요	연결	
21	유현숙	호구의 사랑	연결	
22	윤필,주명	일진의 크기	단절	
23	강형규	쓸개	단절	
24	윤태호	파인	연결	

표 3. 다음 완결 웹툰 연결 유형
총 24개 작품에서 연결 14편, 단절 10편

3. 모바일코믹스

모바일만화의 대표적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와 ‘탑툰’을 분석한다. 두 플랫폼 모두 2015년 5월 현재 자료를 기본으로 2016년 4월 현재 작품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신생 플랫폼이고 19금 이미지가 다수인 관계로 장르와 연재시작, 작품의 이미지 등은 생략한다.

1)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 메인 화면은 크게 완전판/전연령/성인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top 100’에서 상위 작품을 분석한다. 아래 표 연번 1~6번은 성인, 7~10은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고지라군 작품 <4컷 용사>의 경우, 4칸 만화의 형태의 서사만화이지만 제한적 칸의 연출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한다. 총 10작의 분석 결과, 8편이 연결 유형을 2편이 단절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사이트와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연결 양상을 갖는다.(<표 4>)

연번	작가	작품	유형	비고
1	이원식/박형준	몸에 좋은 남자	연결	
2	동굴곰	어린 그녀	연결	완결
3	팀가지	What Does the Fox Say?	연결	
4	네온비	나쁜 상사	연결	
5	은야	나인틴	연결	
6	개호주, 도자기월드	태양초 고추장 연구소	단절	
7	이연지	우리사이드은	단절	
8	노도환	최강왕따	연결	
9	회색	월한강천륙	연결	
10	최용성	그다이	연결	

표 4. 레진코믹스 모바일툰 연결 유형
총 10개 작품을 분석한 결과, 연결 8편, 단절 2편.

2) 톱툰

모바일코믹스 플랫폼인 톱툰도 마찬가지로 성인만화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나 감상을 방지하기 위해 ‘19 off’ 를 켜서 ‘on 19’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모든 작품을 가림 없이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연번 6~10번은 2016년 4월 현재 작품이다.

툰툰의 경우, 분석한 작품의 50%로 가장 높은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분석한 작품 대부분이 19금 작품이어서 서사의 전개보다는 자극적 이미지 연결의 양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긴박한 서사의 연결을 도모하지 않아도 되는 경향을 보인다. 덧붙여 톱툰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 정태영의 언급을 인용하면, “툰툰 편집부에서 원고를 다시 레이아웃 하면서 이전 화의 마지막 장면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²⁰⁾ 이는 앞 화의 뒷부분 몇 칸을 그대로 다음 화에서 다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편집을 한 경우로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인다.²¹⁾ 따라서 분석한 데이터가 작가의 연출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5>)

20) 톱툰 연재 작가 정태영과 직접 인터뷰 중에서, 2015.12.20

21) <표5>의 비고란 ‘복사’가 모바일플랫폼 측의 재편집으로 추정됨.

연번	작가	작품	유형	비고
1	함무량/스파크	암태지	연결	완결
2	아는여자	오필리아	단절	완결
3	태발/돌콩	천박한 년	연결	
4	꿀뚱이	엑스트라에게 인생은 없다	단절	완결
5	Meen&백승훈	독고	연결	완결
6	거북발	H-메이트	연결	복사
7	병수씨	동거	단절	
8	허스키놈, 미누민두	심쿵! 오피스 레이디 S	단절	
9	허이원&쿠레나이	클럽 소돔	단절	
10	참살떡&금사공	시은	연결	복사

표 5. 답툰 모바일툰 연결 유형
총 10개 작품 중 연결 5작품, 단절 5작품.

IV. 결론

지금까지 연재 웹툰에서 두 화의 연결 관계를 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모바일만화 플랫폼 레진코믹스와 답툰에 게재된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서 만화의 기본 특성에 해상하는 ‘칸과 칸의 연결’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았고, 웹툰에도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출판만화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직접 페이지를 넘기는 실물 책이라는 데 있고 웹툰은 주기가 일정기간 지나야 하고 인터넷에서 제공되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양 매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칸이 그 연결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총 130여 편의 웹툰과 모바일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1화의 마지막 칸과 2화의 첫 칸을 ‘연결’ 혹은 ‘단절’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분석 결과 네이버 웹툰에서 약 78% 작품이 연결, 다음 웹툰은 약 64% 작품이 연결, 모바일툰에서는 약 65% 작품이 연결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앞의 이야기를 쉽게 연상하고 다음 화

로 이어지게 만드는 연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웹툰에서 한 화를 구성하는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갖지 않는 것이 우세함을 증명하였다. 한 화로 끝나는 단편만화나 유니버스 작품을 제외하면, 서사 웹툰은 두 화를 연결하는 칸이 서로 동일한 사건과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전혀 새로운 장면(scene)으로 다음 화를 구성하는 작품이 덜 우세하다. 이는 연재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종의 플롯(plot)의 영역에 해당한다. 작가는 이야기의 큰 덩어리를 배열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연재를 진행하는 서사물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서 에피소드를 끊는 연출을 선호한다는 반증이고, 다음 화에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감으로서 독자의 해독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러한 연결 유형은 다음 화가 어떠한 내용으로 흐를지 궁금하게 만드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약 120여 편의 작품을 분석한 실제적인 통계를 제시하였다. 네이버를 예를 들면 2016년 1월 현재 연재되는 총 421여 편의 작품 중 50작품, 약 12%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웹툰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양적인 데이터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6%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수치는 전체 연재 분량과 추출하신 표본 사이의 비중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할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초부터 2013년까지 원고료를 지급받고 공식매체에서 연재된 한국 웹툰을 전수 조사한 부산대 윤기현 교수팀의 「웹툰 통계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특징」 연구와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단독 조사로는 통계 수치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외의 웹툰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모바일 만화의 경우, 소량을 표본 추출하여 데이터에 신뢰를 더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웹툰에서 두 화를 연결하는 두 칸의 연속된 배열 유형을 수치로 제시했고, 새로운 단절이 아니라 긴밀한 연결 양상으로 다수 진행되는 통계를 얻었다. 이는 작가가 연재 웹툰에서 사건의 흐

를 끊는 것-두 화를 동일한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 화에서 독자의 재미와 기대를 유발하게 만드는 연출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한 이 연구는 웹툰의 두 화의 칸을 단순한 연결 또는 단절로 구분했으나 향후 이 두 칸의 연결관계를 스콧 맥클라우드나 안수철의 이론처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조사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림, 『서사만화개론』, 범우사, 1999
- 박기준, 『만화 스토리작법』, 우람, 2000
-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12
- 안수철, 『만화연출』, 글논그림밭, 1996
- 월 아이스너, 『그래픽스토리텔링과 비주얼내러티브』, 비즈앤비즈, 2009
- _____, 『만화와 연속예술』, p.40, 비즈앤비즈, 2009
- 고동균,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015
- 정규하, “출판 만화와 웹툰의 형식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윤태호의 <야후>와 <이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8
- 김지연, 오영재, 「웹툰에 있어서 서사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0 No.3 [2012], pp.127-142
- 안소라, 이원석, 「카툰의 서사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pp.223-246
- 이원석, 「국내의 네칸만화 수사적 표현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9, 2005.10, pp.18-32
- 네이버 웹툰 <http://comic.naver.com/index.nhn>
- 다음 웹툰 <http://webtoon.daum.net/#day=tue&tab=day>
- 레진코믹스 <http://www.lezhin.com/ko/>
- 탑툰 <http://toptoon.com/>

ABSTRACT

The Connection between the Last Panel of 1st Episode And the First One of 2nd on 'Webtoon'

Yi, Won-Suk

First this research starts with agreement that comics is 'the sequential art'. It means that over two sequential panels makes how to recognize the story and this research owes to the connection of forward panel and backward panel. Webtoon, internet comics is also consisted to sequential panels. But only it is different with the publish comics by direction, shape, length and so on. 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point of the connection between first panel and second panel. Especially it researches what types of connections between the last panel of first episode and the first panel of second one beyond the connections of panels at only episode.

This research treats the types of gutter, 'connection' means to continue the same scenes or 'separation' does to divide the story and shows the new scenes. Weekly webtoon must have a kind of break time. The first panel of next episode should remind of the former story, it means easy technique. Otherwise some first panel don't show the same scenes or story so this study researches 130 artworks from the portal sites; Naver, Daum, mobile comics platform; Lezhin Comics and Toptoon, Korea.

Key Word : Webtoon, Gutter, Connection

이원석

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32588) 충남 공주시 대학로 56 예술대학 504호

Tel : 041-850-0390

comix@kongju.ac.kr

논문투고일 : 2016.04.29.

심사종료일 : 2016.05.17.

게재확정일 : 2016.05.31.